

## 분만과 연관된 치골결합부 분리 치험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김세동 · 인주철 · 이재창

### 서 론

임신이나 분만과 연관된 치골결합부 분리는 매우 드물며 설혹 분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역사적으로 골반관절의 개방은 분만에 필요한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정상적인 임신의 경우 어느 정도의 골반관절의 개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치골 결합부가 1cm 이상 분리된 것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또한 증상을 유발시키게 된다.

저자는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형외과학교실에서 1예의 분만과 연관된 치골결합부 분리를 치험하였으며, 간단한 문헌고찰도 함께 하였다.

### 증 례

26세 된 주부로(gravida 1, para 1) 내원 3일전 경주시 소재 개인의원에서 정상분만한 뒤부터 계속 치골결합부에 심한 동통이 있었고 걸음걸이에도 이상이 있었다고 한다. 포항시 소재 종합병원에서 치골결합부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본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환자는 심한 치골결합부 동통과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였고 이학적 검사상 치골결합부 상방에 압통이 있었다.

내진 소견으로는 정상적인 분만 후 상태를 보였다.

골반 X-선 소견은 약 2cm의 치골결합부 분리가 있



Photo. 1. This anteroposterior radiograph of the pelvis shows distruption of the symphysis pubis with a separation of 2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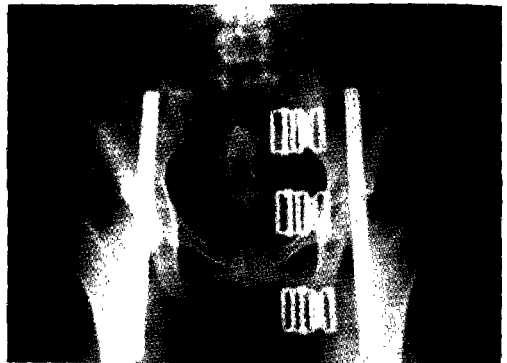


Photo. 2. After manipulation, good reduction was achieved.

었다 (Photo. 1).

입원 후 바로 골반전을 착용시키고 끈을 교차시켜 최대한의 정복을 시도 하였으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Photo. 3.** This anteroposterior radiograph, made 10 weeks post partum, shows maintenance of reduction with a separation of 1 cm.

보다 효과적인 정복을 위해서 환자를 측와위로 유지시키고 골반건을 조정하여 착용시켰으며 이때의 정복상태는 만족할만 하였다 (Photo. 2). 정복 상태는 절대 침상안정 및 양측 측와위를 번갈아 가면서 유지하였다.

증상은 정복후 차츰 호전되었으며 입원 34일만에 골반건을 착용한 채로 퇴원하였다.

정복 상태가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점차로 앉기와 서기를 허용하였으며 분만 3개월후 골반 X-선 소견은 약 1cm의 치골결합부 간격을 보이고 있으며 (Photo. 3), 분만 약 11개월 후까지 특별한 증상 없이 잘 지내고 있다.

## 고 찰

치골 결합은 양측 치골체가 섬유 연골관에 의해 결합된 반관절(amphiarthrosis)이다.

이 관절은 4개의 치골인대가 둘러싸고 있으며 progesterone과 relaxin이 치골인대의 신축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신과 분만에 연관된 골반관절의 증가된 운동성은 분만 전후에 골반관절의 손상 가능성을 높이게 되며, 같은 이유로 손상 관절의 정복도 쉽게 해준다.

임신 기간중 치골 결합 간격의 변화는 미미하며, 최대 변화치도 1cm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sup>4)</sup> 이러한 관절 이완은 치골 결합에서 두드러지며 천장관절에서는 심하지 않다.

치골 결합분리의 원인으로는 난산등의 산과적인 문제, 분만중의 과도한 대퇴부 외전, 골반환의 외상 기왕력, 골대사 질환이나 염증성 질환, 과도한 홀몸 분비와 관련된 인대이완등이 알려져 있다.<sup>4)</sup>

치골 결합 분리의 발생 빈도는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제왕절개술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임상적으로 치골 결합분리의 주된 증상은 치골 결합부의 동통이며, 때로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동반될 수 있다. 치골 결합부의 압통이 있으며 틈이 만져질 수도 있다. 동통은 일어서 있을때나 걸을때 나타나며, 따라서 보행장애가 있어 소위 “오리걸음(waddling gait)”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1cm 이하의 치골 결합부 분리는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그 이상이면 대개 증상을 유발하게 되고 치료가 꼭 필요하다. 치료는 보존적 치료가 주된 것이며 수술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적이다.

증상은 있으나 분리가 1cm 미만이면 경과 관찰을 요하며, 1cm 이상이면 정복 및 골반건을 이용한 정복의 유지, 측와위 절대침상안정등이 필요하다. 본 증례에서도 이러한 치료법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고정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합병증으로는 불유합, 치골관절염, 감염 등이 보고되어 있으나 실제 발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sup>5)</sup> 본 예에서도 특별한 합병증은 없었다.

## 요 약

저자는 분만과 연관된 치골 결합부 분리 1예를 시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 참 고 문 헌

1. Blum, M., and Orovano, N. : Open Rupture of the Symphysis Pubis during Spontaneous Delivery. *Acta Obstet. Gynec. Scandinavica*, 55 : 77-99, 1976.
2. Charles A. Rockwood, Jr. and David P. Green. : Fractures in Adults. 2nd ed., J. B. Lippincott Company, Philadelphia, p. 1128-1130. 1984.
3. Cibils, L. A. : Rupture of the Symphysis Pubis. A Case Report. *Obstet. and Gynec.*, 38 : 407-410, 1971.
4. Ronald W. Lindsey. : Separation of the Symphysis Pubis in Association with Childbearing. A Case Report. *J. Bone Joint Surg.*, 70-A : 289-292, 1988.
5. Peltier, L. F. : Complications Associated with Fractures of the Pelvis. *J. Bone Joint Surg.*, 47A : 1060-1069, 1965.

### — Abstract —

## A Case of Separation of the Symphysis Pubis in Association with Delivery

Se Dong Kim, Joo Chul Ihn, and Jae Chang Lee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College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Taegu, Korea.*

Separation of the pubic symphysis in association with delivery is very rare. The Korean orthopedic and obstetrical literature pertaining to this syndrome is absent. The physiological widening is small and asymptomatic, but a separation of more than one centimeter may occur and is usually symptomatic.

A twenty-six-year-old woman of separation of symphysis pubis associated with delivery was treated successfully with the treatment of reduction and pelvic band, with absolute bed rest in the lateral decubitus position.